

고려왕실의 세시의례

박종민*

목 차

- I. 머리말
- II. 연구전거 비교 검토
- III. 왕실 세시의례
- IV. 특징
- V. 맺음말

I. 머리말

한국민속학에서 선학들은 세시풍속에 일찍부터 관심을 갖고 연구하여 왔다. 그 동안의 연구성과에 대해서 몇가지 공통점이 발견되지만 일단 두가지에 관심을 가져본다. 첫번째로 선학들은 세시풍속을 농업과 상당히 관련시킨다. 이는 한국이 고래로부터 농경사회였다는 사회적 상황에서 출발하였으며 그로 인해서 민속의 주체를 농경사회 구성원들에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들 중 다수가 실제로 농업을 생산적 기반으로 삼고 있거나 관련을 맺고 있었다. 즉, 경제적 생산기반을 농업에 두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물론,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전남과 경남편에는 어업과 관련하여 세시풍속이 조사·기술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현존하는 세시 관련 자료와 기술 내용은 농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두번째로 선학들은 세시풍속이 주로 1년 단위로 일정한 시기에 치러진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주기성'과 '반복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 연구는 자연력과 생산력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선조들은 자연력으로 태음력과 태양력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태양력은 갑오개혁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지만, 태양의 황경에 따라서 성립되는 24절기는 이미 고려인들의 생활에 정착되어 있었다. 또한 선학들은 《동국세시기》를 근거로 하여, 각종 의례·농사(풍농)·놀이·점복·시절음식 등을 연구대상으로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이들은 '관(官)'이 아닌 계층의 생활을 주로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전통사회라 하더라도 세시의례는 어느 한 계층에 의해서만 결코 형성되지 않았다.(이두현 외 1982 : 216~7, 장정룡 1988 : 20, 김혜숙 1998 : 6 참고) 본 글은 선학들이 제시한 '주기성'과 '반복성'을 참고하여 고려왕실과 그 주변에

* 온양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

서 설행되었던 세시의례¹⁾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왕실이라고 하여도, 아마도 왕을 중심으로 한 세시의례가 주가 될 수 있다.

본 글은《고려사》와《고려사절요》를 연구전거로 하여 고려시대에 설행되었던 세시의례를 왕실 중심으로 살펴보겠다.《고려사》와《고려사절요》는 고려시대 정사이므로 왕실을 포함한 지배계급을 중심으로 구성된 사서이다. 따라서 양 저서를 통해서 고려인의 보편적인 삶의 궤적을 추적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고려시대의 세시의례를 논함에 있어 당시 제도권 문화를 우선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고려시대 세시의례 연구의 선행작업으로서 왕실의 세시의례를《고려사》와《고려사절요》를 통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고려시대 세시의례를 알아볼 수 있는 전거로 이들 정사서 이외에《동국이상국집》·《고려도경》·고려가요인 <동동>을 비롯하여 각종 문집과 금석문 등을 통해서 가능하다. 오히려 당시 고려인들의 삶을 추적하는데는 후자들의 자료가 더 타당할지도 모른다.²⁾

《고려사》와《고려사절요》는 비록 조선 초기에 성리학적 소양을 갖춘 관학자들이 편찬하였을지라도 고려 역사를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양 저서는 어느 저서들보다도 왕실 중심의 생활상을 전체적으로 엿볼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물론 조선 초에 성리학으로 무장한 편찬자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정치적 제상황들이 배제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비록 왕실 세시의례라고는 하지만, 고려시대 세시의례 연구는 일정 부분 한계를 노출시킬 수밖에 없다. 《고려사》와《고려사절요》를 연구자료로 삼음으로써 고려시대에 보편적으로 행해졌던 세시풍속을 살펴보기보다는 왕실 중심의 세시의례를 기술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음을 우선 자인한다. 양 저서가 지니고 있는 고유한 특성 때문에 상하계층을 막론한 고려시대의 전반적인 세시의례를 살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따른다. 양 저서는 고려인들 사이에서 행해졌던 절일 풍속을 간단하게나마 간혹 기술하고 있기는 하지만, 고려인들이 실제로 행하였던 세시의례들을 속속들이 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설령, 안다하여도 그들이 행했던 세시의례 명칭과 구체적인 방법은 왕실 및 관리들의 의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시사받을 수밖에 없다.

고려시대는 귀족·무신·권문세족이 시기에 따라서 정치적 주체세력으로서 주도권을 잡았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왕권이 위축되기도 하였지만 왕실에서 설행되는 의례는 지속되었다. 이는 왕권의 정통성을 유지하고 상징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가능성이 높다. 본 글은 고려시대 세시의례를 일단 시론 수준에서 다루고자 한다. 왕실과 그 주변을 중심으로 고려시대의 세시의례를 한정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고려시대 세시의례를 전반적인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려인들의 세시의례를 분석하기보다는 사실(史實)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그러나 한국민속학계의 세시의례 연구와 관련하여 생각해 보면 이번 글이 많은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다하더라도 나름대로

1) 선학들은 세시풍속 용어와 관련하여, 세시풍속일·절일·명절·연중행사·세시·월령 등 기타 여러 용어를 구분없이 사용하였다. 우리나라는 세시풍속으로, 중국은 세시 또는 월령으로, 일본은 연중행사 로 부르고 있다(박계홍 1987 : 371). 김혜숙은 이들 용어를 분석한 후에 기준을 설정하고 이들 관계를 정리하여 구체적인 예까지 제시하였다(김혜숙 1998 : 5~8). 본 글에서는 선학들의 연구와 관련될 때 는 '세시풍속' 용어를 쓰되, 고려왕실과 관련될 때는 '세시의례' 용어를 사용하겠다.

2) 필자는 추후에 이들 자료를 검토하여 고려인들의 세시의례를 살펴본 후에, 고려시대 세시의례를 종합 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번 글은《고려사》와《고려사절요》를 통해서 왕실 중심의 고려시대 세 시의례를 한정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따라서 이번 글은 고려인의 세시의례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선행연구의 특징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II. 연구전거 비교검토

본 글은《고려사》와《고려사절요》를 연구전거로 삼아서 고려왕실에서 행해진 세시의례를 살펴 보고 있다. 세시의례를 살펴보기 전에《고려사》와《고려사절요》의 성격·기술방향·편찬과정 등을 개괄적이거나 언급하여 연구자료의 성격을 미리 제시해 본다. 또한 민속과 관련하여 양 저서를 상호비교하여 공통점과 상이점을 정리하여 본다. 양저의 전문에 이러한 일련의 사항들이 언급되어 있어 그 특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고려사》전문은 고려 왕조의 전체적인 상황을 기술하고 후기로 접어들면서 부정부패 일로를 걸음으로써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하는 당위성을 밝히고 있다. 태종 당시 여러 정치·사회적 요인으로 필진이 바뀌게 되어서 고려사가 적기에 편찬되지 못하였음을 아울러 슬회하고 있다. 비로소 세종이 적극적으로《고려사》편찬에 관심을 보이면서 사마천의《사기》에 준한 기전체로 완성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기본 방향은 세종에게 직접 물어서 결정하였다고 밝히고 있어, 왕의 의견이 고려사 편찬에 강력히 개진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또한 본기(本紀)라 하지 않고 세가(世家)라 하였으며, 신우(辛禱)와 신창(辛昌)을 세가에 넣지 않고 열전에서 소개하고 있다. 열전은 충신과 간신, 부정한 자와 공정한 자를 구분하여 기술하고 있다. 《고려사》는 세가 46권·지39권·표2권·열전50권·목록2권 총139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인지가 전문을 지어 올렸다.

《고려사절요》전문은 기전체(고려사)의 글이 번잡하여 읽기에 어려운 점을 예로 들어서 고려사 절요를 편년체로 편찬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고려 전기를 국가로서 틀이 형성되어서 정치와 사회가 안정되었던 것으로 보고있다. 그러나 중기 이후로 나라 안팎이 매우 시끄러워서 정치사회가 불안하였다. 결국 고려가 쇠망의 길을 걷게 되었으며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하게 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태조가 보신에게《고려사》를 편찬케 하고 태종이 교정을 보게 하였다.《고려사절요》는 권선징악으로 정치도리에 도움을 주어서 백성들이 성덕을 입도록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고려사절요》는 35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김종서가 전문을 지어 올렸다.

다음은《고려사》와《고려사절요》를 구성·기술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³⁾ 양 저서는 고려 역사를 기전체와 편년체로 기술했다는 점에서 구성전개상 상이하지만 내용은 상당부분 상호부합되게 기술되어 있다. 또한《고려사절요》는《고려사》에 기술되지 않은 내용을 추가로 서술하고 있다. 《고려사》는 군주의 조칙(詔勅) 전문을 게재하고 신하의 장소(章疏)를 열전에 수록하여 세가에는 요점만을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고려사절요》는 군주의 교지를 간단히 서술하고 신하의 장소를 비교적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과 내용이 양 저서간 차이점인 동시에 부족한 부분을 상호보충하고 있다.

《고려사》는 이실직서(以實直書)로 군주의 입장을 많이 반영하여 자신들의 권위와 치적을 드러내는데 치중하는, 주로 정치사에 관심을 보였다.《고려사절요》는 유교이념과 관련있는 제도와 정책

3) 변태섭, <고려사의 종합적 검토>, 1981년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역사연구실 연구과제.
한영우, 1983,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의 역사인식>,《한국사론6》국사편찬위원회.
《고려사》와《고려사절요》를 여러 면에서 상호비교한 논문은 다수 있다. 본 글은 상기 두편의 논문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고려사와 고려사절요를 상호비교하여 검토하겠다.

에 역점을 두고 고려의 흥망성쇠를 기술하고 있다. 또한 정치적으로 군주보다 관료에게 주도권을 주고, 문화적으로 유교와 배치되는 이단을 배척하고 인정과 애민의 통치규범을 강화하려는 찬자들의 입장이 반영되어 있다. 기술상 상이점과 조선개국 초기 정치적 상황과 맞물리면서 양 저서는 출판과 반포에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야만 했다. 즉 정치적인 입장 차이로 편찬에 난항을 많이 겪었다. 고려 역사서를 편찬하는데 조선조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심대한 영향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고려사》와《고려사절요》는 상당히 상이한 반면에 그에 상응해서 내용상 부합되는 경우가 있다. 민속과 관련해서 살펴보면《고려사절요》가《고려사》보다 불교를 강경하게 비판하고 있으나, 풍수도참 사상·팔관회와 연등회 같은 민족적 종교행사에 양서 모두 관용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려사》는 불교의 사회경제적 폐단에 초점을 맞추어서 지적한 반면에《고려사절요》는 불교의 사회경제적 폐단과 불교사상 자체까지 논하였다. 군주가 종교행사에 참여하므로써 야기된 부정적인 측면까지 서술하고 있다. 고려사는 성리학을 배척되는 초제·산악송배·기자와 동명에 대한 신앙 등 잡사를 실고 있다.⁴⁾

양 저서의 편찬자들은 조선 초기 관학파들로서 새로운 국가를 이끌어가는 정치·사회적 지도자들이다. 이들에게는 새로운 국가이념인 성리학을 조선사회에 심어 놓아서 국가체제를 견고하게 할 필요성이 있었다. 불교가 앞선 왕조 지배이데올로기로서 자리매김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와 사회를 맞이해서 이를 더욱 더 철저히 배척해야만 했다. 불교 배척을 성공할 경우에만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고려사절요》는 편찬자들의 견해가 상당수 반영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아서《고려사》보다 불교 배척 논의가 더욱 강화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풍수도참신앙, 팔관회와 연등회는 고려시대에 성행하였다하지만 불교보다 정치적인 색채를 비교적 덜 띠었기 때문에 편찬자들은 이들을 심하게 배척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도전이《고려국사》를 편찬한 이래로 고려역사서가 계속해서 개수되었다.(변태섭 : 1981, 5~17쪽, 한영우 : 1983 109~116쪽)《고려사》는 여러차례 개찬작업을 통하여 김종서에 의해서 완성을 본 고려 역사서이다.(변태섭 : 1981, 17~39쪽) 기전체《고려사》가 편찬된 이후 편년체로 쓰여진 고려 역사서가 결실히 요청되었다. 그래서 문종 2년 2월에 김종서가《고려사절요》를 상진하므로써 편년체로 쓰여진 고려 역사서의 탄생을 보게 되었다.

Ⅲ. 왕실의 세시의례

《고려사》에 고려인들이 행하였던 9대 속절⁵⁾을 명시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이외에도 선학들이 제시한 기준과 내용을 참고하여《고려사》와《고려사절요》에 기술된 왕실 중심의 세시의례들을 월별로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보겠다. 간혹 왕실과 관련되지 않은 내용도 기술되어 있지만, 선학들이 제시한 기준에 부합되면 본 글에서는 참고적으로 실는다. 단, 개인적 차원에서 행해졌던 의례와 대외적인 외교 차원에서 행해졌던 의례는 이번 글에서 다루지 않는다.《고려사》와《고려사절요》에 기

4)《高麗史》卷63 志17卷 禮5 雜祀

5)《高麗史》卷84 志 第38卷 刑法1 禁刑

“俗節元正上元寒食上巳端午重九冬至八關秋夕”

술된 내용들을 상호보충하여 정리한다.

1. 1월

가. 조하의식(朝賀儀式)

왕은 정월 초하루를 맞이하여 친히 경령전에 나아가서 선대왕에게 예를 갖추어서 제를 올린다.⁶⁾ 그리고 왕은 백관들과 전(殿)에서 조하의식을 집사자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격식대로 거행한다.⁷⁾ 《고려사》에는 경령전의식을 길례대사로, 조하의식을 가례로 진행절차와 방식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⁸⁾ 이날 각 지방관리들이 표문을 지어서 왕에게 올리고 왕은 하정표문을 지어 신하들에게 보이고, 내탕고(內帑庫)의 은과 저포, 주과를 하사하고 연회를 베풀었다. 선종은 신정·동지·팔관회를 맞이하여 내외 관원들이 왕에게 표문을 지어올리는 것을 영구히 지속시킬 것을 명하였다.⁹⁾ 이와 반대로 정종(靖宗)은 13년간의 재위기간(1034~1046)동안 조하의식을 7차례(원년·2년·3년·7년·8년·9년·11년)나 정지시켰지만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다. 선종의 경우, 재위기간(1083~1094)동안 재위 2년과 3년을 제외한 이외의 정조 축하의식을 정지시켰다. 재위 9년(1092)에만 정월 초하루에 눈이 내려서 정조 축하의식을 정지하게 되었다고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고 있다.¹⁰⁾ 예종은 재위기간(1105~1122)동안 재위 3·6·7·8년을 제외한 이외의 모든 조하의식을 12번이나 정지하였다. 이중에 원년(1106)에만, 예종은 상중에 있다하여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면서 축하인사를 받지 않았다.¹¹⁾

나. 인일(人日)

인일은 정월 초이레로 백관들은 왕에게 축하의 예를 올린다. 예를 받은 왕은 백관들에게 인승낙패(人勝祿牌)를 하사한다.¹²⁾ 내부(內府)가 고갈되어 인승을 주던 선물을 중지한 적도 있다.¹³⁾ 당시 고려 왕실의 재정상태는 다음과 같았다. 연경궁에서 배설된 패아찰(孝兒扎)연회에 꽃을 만드는데 포 5,140여 필과 기타 물품도 이에 상응하여 사용하였다. 이로 인해서 물가가 폭등하여서 공사간에 기름, 꿀과 과실 사용을 금지하였다. 재정이 고갈되어 영복도감(永福都監)¹⁴⁾에서 2,600필을 돌려쓰고, 민간의 부유층들로부터도 빌려 썼다.¹⁵⁾

6)《高麗史》卷19 世家 第19 明宗 3年(1173) 正月 乙丑朔

7)《高麗史節要》第7卷 睿宗 丙戌元年 正月

《高麗史節要》第11卷 毅宗 己丑23年 正月 戊午日

《高麗史節要》第11卷 毅宗 庚寅24年 正月 壬子日

《高麗史節要》第19卷 忠烈王 丙子2年 正月 丁卯日

8)《高麗史》卷61 志 第15卷 禮3 景靈殿

《高麗史》卷67 志 第21卷 禮9 嘉禮

9)《高麗史節要》第6卷 宣宗 丙寅 3年 10月

10)《高麗史》卷10 世家10 宣宗 9年(1092) 正月 甲申朔

11)《高麗史》卷12 世家12 睿宗 元年(1106) 正月 甲午朔

12)《高麗史》卷19 世家19 明宗 3年(1173) 正月 辛未日

《高麗史》卷67 志 第21卷 禮9 嘉禮

13)《高麗史》卷38 世家38 恭愍王 3年(1354) 正月 庚午日

14)《高麗史》卷第77 志 第31 諸司都監各色 永福都監

“忠穆王初即位支厯金剛山檢站寺置之恭愍王定判官從五品祿事權務”

15)《高麗史》卷38 世家38 恭愍王 2年(1353) 8月 乙巳日

다. 등석(燈夕)

정월 보름인 상원을 맞이하여 왕은 주연을 베풀었다.¹⁶⁾

라. 원구(園丘)·방택(方澤)·적전(籍田)같이

성종은 원구¹⁷⁾에 풍년을 빌고 태조를 배향하였으며 몸소 적전¹⁸⁾을 갈고 신농(神農)씨를 제사하고, 후직(后稷)을 배향하였다. 풍년을 빌고 적전을 친히 경작하는 의식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¹⁹⁾ 적전같이 할 때 왕은 <파비>를 다섯 번 밀고, 여러 왕족과 삼공(三公)은 일곱번 밀고, 상서와 경은 아홉번 밀었다.²⁰⁾ 이후에도 왕은 정월에 원구제사와 적전같이를 지속하였다.²¹⁾ 현종은 적전을 갈고 나서 유형 이하 죄수를 특사하고, 원구와 방택²²⁾의 제례를 집행한 관원들에게 물품을 나누어주었다.²³⁾ 죄수 석방은 성종부터 송의 영향을 받아서 실시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 이 해 정월에 송나라 황제가 친히 적전을 갈고 대사(大赦)하였으며, ...”²⁴⁾하는 대목에서 엿볼 수 있다. 왕은 풍년을 위한 제사와 행사만을 거행한 것이 아니라 농업과 관련한 정책을 실제로 많이 시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요시 여겼다.

마. 기타 제사

동북 교외에서 풍사(雨師)에게 제사를 지냈다.²⁵⁾《고려사》지에 풍사에 관해서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²⁶⁾ 풍사는 바람을 맡은 신으로, 단의 높이가 3척, 너비는 23보, 사면이 층계로 이루어져 있다. 단은 성의 동북쪽 영창문 밖에 설치되어 있었으며 입춘 후 축일(丑日)에 제를 지냈다. 희생으로 소와 돼지 각 1두씩 사용하였다.

2. 2월

가. 연등회

왕은 연등회를 열어서 태자 및 종친과 신하들에게 전에서 주연을 베풀고 사찰로 행차하였다. 현종은 성종이 폐지한 연등회를 부활시켜서²⁷⁾ 배설일자를 2월 보름으로 고정시켰다.²⁸⁾ 그러나 이후에

“設享兒扎宴于延慶宮王及公主與焉是宴用布爲花凡五千一百四十餘匹他物繕是窮極審修由是物價騰漲禁公 私有油蜜果時國用罄竭貲永福都監布二千六百匹又貲於富民”

16)《高麗史節要》第7卷 睿宗 丙戌 元年 12月

17)《高麗史》卷59 志 第13卷 禮1 吉禮大祀

18)《高麗史》卷62 志 第16卷 禮4 吉禮中祀

19)《高麗史》卷3 世家3 成宗 2年(983) 正月 乙亥日

《高麗史節要》第2卷 成宗 癸未 2年 正月

“王祈穀于園丘配以太祖躬耕籍田祀神農配以后稷祈穀籍田始此”

20)《高麗史節要》第10卷 仁宗 甲子 22年 正月

《高麗史》卷62 志 第16卷 禮4 吉禮中祀

21)《高麗史》卷17 世家17 仁宗 22年(1144) 正月 辛酉日

22)《高麗史》卷6 世家6 靖宗 2年(1036) 2月 庚戌朔

《高麗史》卷59 志 第13卷 禮1 吉禮大祀에 顯宗 22年 正月, 靖宗 10年 10月 丙申日, 仁宗 5年 3月 戊 午日에 왕이 방택 제사를 친히 올린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23)《高麗史》卷5 世家5 顯宗 22年(1031) 正月 乙亥日

24)《高麗史節要》第2卷 成宗 戊子 7年 10月

“... 是年正月宋帝親耕籍田大赦...”

25)《高麗史》卷6 世家6 靖宗 5年(1039) 正月 辛丑日

《高麗史》卷6 世家6 靖宗 11年(1045) 正月 丁丑日

26)《高麗史》卷63 志 第17卷 禮5 吉禮小祀

연등회를 반드시 2월 15일에 거행한 것은 아니다. 15일이 한식이고 13일이 국기일이어서 12일에 치르고²⁹⁾ 왕이 원에 입조하는 관계로³⁰⁾ 연등회를 미리 베풀었다. 이와 반대로 한식과 겹쳐서 하루 늦추어서³¹⁾ 연등회를 베풀은 경우도 있다.

정종(靖宗)은 연등회를 열고 봉은사에 가서 태조 초상을 참배하는 한편 관등하는 날 저녁에 반드시 초상을 모신 진전에서 친히 분향하는 것을 상례로 삼았다.³²⁾ 문종은 흥왕사³³⁾, 봉은사³⁴⁾, 중광전³⁵⁾에서 연등회를 특별히 열었다. 또한 15일에 정상적으로 연등회를 거행하고, 22일에 연등회를 특별히 열고 경령전을 참배하였다.³⁶⁾ 2월이 인종의 기월(忌月)이기 때문에 의종은 교서를 통해서 연등회를 정월 보름에 치루기로 하였다.³⁷⁾ 명종 2년(1172) 2월 계축일에 담당 관리가 태조 당시 제도에 따라서 2월 보름에 연등회를 갖자고 청하였는데, 왕이 이 제의를 받아들였으나 결국 이듬해부터 상원으로 다시 환원하였다.

명종은 태후의 상사로 상원 연등행사를 정지시키고, 4월에 연등회를 열었으나, 꽃을 꽂는 놀음[插花] 등 여러 놀이를 금지시켰다.³⁸⁾ 우왕 역시 정월에 국상이 있었기 때문에 9월에 연등회를 열었다.³⁹⁾ 흥작으로 연등회를 중지한 적도 있었다.⁴⁰⁾ 이상과 같이 현종은 연등회를 부활하면서 설행일자를 2월 15일로 고정하였다. 그러나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연등회 일자를 변경해서 설행하였다.

나. 한식

왕은 한식을 맞이하여 내전에서 문무관 상참 이상 관리들에게 연회를 베풀었다.⁴¹⁾

3. 3월

- 27) 《高麗史》卷4 世家4 顯宗 元年(1010) 閏2月 甲子日
 28) 《高麗史》卷4 世家4 顯宗 2年(1011) 2月 己未日
 29) 《高麗史》卷8 世家8 文宗 24年(1070) 2月 癸酉日
 《高麗史》卷9 世家9 文宗 32年(1078) 2月 丙辰日
 《高麗史》卷26 世家26 元宗 9年(1268) 2月 壬辰日
 30) 《高麗史》卷28 世家28 忠烈王 3年(1277) 正月 甲辰日
 31) 《高麗史》卷7 世家7 文宗 2年(1048) 2月 甲申日
 32) 《高麗史》卷6 世家6 靖宗4年(1038) 2月 癸未
 “燃燈王如奉恩寺謁太祖眞燈夕必親行香眞殿以爲常”
 33) 《高麗史》卷9 世家9 文宗 21年(1067) 正月 戊辰日
 “特設燃燈大會於興王寺五晝夜勅令百司及安西都護開城府廣水楊東樹五州江華長湍二縣自關庭至寺門結綵 棚楸北嶺次連亘相屬輦路左右又作燈山火樹光照如晝是日王備鹵簿率百官行香施納財襯佛事之盛曠古未有”
 34) 《高麗史》卷9 世家9 文宗 26年(1072) 正月 甲戌日
 《高麗史》卷9 世家9 文宗 27年(1073) 2月 丁酉日(23일)/己丑日이 2月 15日
 “王如奉恩寺特設燃燈會慶讚新造佛像街衢點燈兩夜各三萬盛重光殿及百司各置綵樓燈山作樂”
 35) 《高麗史》卷9 世家9 文宗 31年(1077) 2月 癸卯日
 “乙未燃燈於重光殿觀樂…癸卯特設燃燈會於重光殿三日”
 36) 《高麗史》卷8 世家8 文宗 25年(1071) 2月 戊寅日
 “辛未燃燈王如奉恩寺戊寅特設燃燈會謁景靈殿”
 37) 《高麗史》卷17 世家17 毅宗 卽位年(1146) 12月 丙午日
 38) 《高麗史》卷20 世家20 明宗 14年(1184) 4月 壬申日
 39) 《高麗史》卷21 世家21 熙宗 卽位年(1205) 9月 辛未日
 40) 《高麗史》卷133 列傳46 辛禑 4年(1378) 2月
 41) 《高麗史》卷5 世家5 顯宗 16年 2月 壬午日

가. 삼진날(上祀)

삼진날은 3월 3일로, 문종은 흥왕사에 가서 남쪽 산봉우리에 친히 올라 계음(褻飲)행사를 치른 후, 상사시를 친히 짓고 수행 신하들로 하여금 화답시를 지어 바치게 하였다.⁴²⁾ 선종은 문종의 반혼당(返魂堂)에서 한식제사와 상사를 거행하였다.⁴³⁾

나. 곡우

곡우는 황경이 30°로서 3월(季春月) 중기이다. 곡우에 서리가 내려서 죄수들을 재심사하였다.⁴⁴⁾

다. 경행(經行)

왕은 시중 최제안에게 명하여 구정에 나아가 향을 피우고 거리에 나가는 경행을 배송하게 하였다. 이날은 대체로 서울 거리를 세갈래로 나누어 각각 채색된 들것에 반야경을 싣고서 메고 앞서 나가면, 중들은 법복을 입고 따라 가면서 불경을 외우고, 감압관(監押官)도 관복을 입고 뒤를 따라서 시가지를 순회한다. 이것은 백성들을 위해서 축원하는 행사로 '경행'이라 하였다. 이해부터 상례로 되었다.⁴⁵⁾

4. 4월

가. 석가탄신일

석가탄신일은 4월 8일로서, 이날을 맞이하여 왕실뿐만 아니라 일반 민간에서도 다채로운 행사가 거행되었다. 백선연(白善淵)이 의종 나이대로 등불 40구를 주조하고 관음화상 40탱(禪)을 그렸으며, 석탄일에 등을 밝혀 별원에서 복을 비니 왕은 밤에 몰래 가서 보았다.⁴⁶⁾ 공민왕은 궁중에서 연등을 하고 중 100명에게 음식을 주었고, 화산놀이(火山雜戲)를 시키며 기생의 풍악도 즐겼다.⁴⁷⁾ 궁중뿐만 아니라 집집마다 연등을 하고 아이들은 며칠 전부터 종이를 오려서 막대기에 붙여 기를 만들어서 서울 거리를 외치고 돌아다니는 호기놀이를 하니, 이를 구경한 후에 포를 주기도 하였다.⁴⁸⁾ 우왕은 폐신과 함께 화원에서 등불놀이를 즐기면서 연회를 베풀고, 부처를 영접하고 전승하였다.⁴⁹⁾

나. 입하

입하는 황경이 45°로서 4월(孟夏月) 절기이다. 입하가 되면 왕에게 얼음을 바쳤으며,⁵⁰⁾ 또한 해

42) 《高麗史》卷8 世家8 文宗 23年(1069) 3月 己巳日

43) 《高麗史》卷10 世家10 宣宗 2年(1085) 3月 丙申日

44) 《高麗史》卷6 世家6 靖宗 11年(1045) 3月 丙子日

45) 《高麗史》卷6 世家6 靖宗 12年(1046) 3月 辛丑日

《高麗史節要》第4卷 靖宗 丙戌 12年 3月

“命侍中崔齊顏詣徒庭行香拜送街衢經行分京城街衢爲三道各以彩樓子擔般若經前行僧徒具法服步行讀誦監押官亦以公服步從巡行街衢爲民祈福名曰經行自是歲以爲常”

46) 《高麗史節要》第11卷 毅宗 丙戌 20年 4月

“白善淵准王行年鑄銅佛四十軀畫觀音四十禪以佛生日點燈祝釐於別院王乘夜微行觀之”

47) 《高麗史》卷38 世家38 恭愍王 元年(1352) 4月 庚戌日

48) 《高麗史》卷40 世家40 恭愍王 13年(1364) 4月 辛丑日

49) 《高麗史》卷135 列傳48 辛禰 10年(1384) 4月 甲戌日

50) 《高麗史》卷6 世家6 靖宗 2年(1036) 4月 壬子日

《高麗史節要》第4卷 靖宗 丙子 2年 4月에는 “임금에게 얼음을 올리니, ‘... 덥지 않으니 5월에 얼음을 올리라’ 하였다. 유사가 ‘해가 북쪽에 있으며, 얼음을 빙고에 저장하였다가 해가 서쪽에 있으며 얼음을 꺼냈어 꺼내는데 헌고하고 빙고를 여는 것이니 저장하기를 조심히 하고 내어 쓰기를 고루하면, 덥고 추운 고통이 없는 것이니 무릇 얼음 쓰는 법은 춘분 때 시작하여 입추때 끝나는 것입니다. 만일 5월에 얼음을 올리면, 옛법에 어긋나 음

당 기관에서 퇴직한 전 문하시중 유방 등 17명에게 입추까지 10일에 한번씩 얼음을 주자고 제의하니 왕이 이를 좇았다.⁵¹⁾ 또한 얼음을 저장하거나 사용할 때는 일정한 의식을 치렀다.⁵²⁾

다. 체제(禘祭)

체제는 4월에 왕이 태묘에서 5년 한 번씩 선대 왕들에게 올리는 제사로서 섭사가 가능하다.⁵³⁾ 태묘는 성종 11년(992) 12월에 준공되었다. 성종은 친히 태묘에 체제를 지내고 태조·혜종·정종·광종·대종·경종의 신주를 모시고 대사하고 문무관에게 각 1급을, 제사의 집사자에게 각 2급을 주고 백성에게는 3일 동안 주식을 크게 내리고, 부모없는 어린이와 자식없는 늙은이를 구휼하고 기구에게 상주며, 흠포(欠遞)를 견감(緘減)하고, 오래 된 흠조(欠稅)를 감면하였다.⁵⁴⁾ 예종도 체제를 지낸 후에 대사를 단행하고 이와 유사한 조서를 내리기도 하였다.⁵⁵⁾ 현종 때에는 체제에 진설할 변두를 증설하고자 하는 논의가 있었으나 예부의 설득으로 관철되지 않았다.⁵⁶⁾ 왕이 체제에 반드시 참여하여 예를 올리지 않아도 된다. 부득이한 경우 관리들로 하여금 섭사를 해도 무방하다. 정종 때에 왕후 책봉일로 실제로 섭사 논의가 있었으며,⁵⁷⁾ 뿐만 아니라 예종은 해당관리에게 명하여 태묘에서 체제를 치르게 하고 김상기를 선종 묘에, 최사추를 숙종 묘에 배향하게 하였다.⁵⁸⁾ 예종은 3월 을묘일에 서경으로 행차하여 4월 초하루인 갑자일에 도착하였다. 체제를 치러야 할 당시에 예종은 서경에 있었다.《고려사》예지는 왕이 친히 올리는 절차와 섭사 절차의 두가지 방식으로 나누어서 기록하고 있다.⁵⁹⁾ 인종은 태조를 동쪽을 향하게 하고, 덕종·정종(靖宗)·문종·예종을 소(昭)로, 현종·순종·선종·숙종을 목(穆)으로 정하고,⁶⁰⁾ 원종은 체례에 입는 복장제도를 정하였다.⁶¹⁾

라. 경신(庚申)지키기

도가에 따라서 때양 이날을 맞이하여 반드시 모여서 마시고 잠을 자지 않고 밤을 새운다. 이를

양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입하에 올리게 하소서'라고 아뢰니, 왕이 따른 것(以立夏節進冰制曰今年不旱熱其待五月進冰有司窵日在北陸而藏冰西陸而出之獻羔而啓之藏之也周用之也獨則無愆伏凄苦之灾故凡用冰之法自春分至立秋而盡若於五月始進則有乖古法非所以調陰陽也請以立夏進之從之)"으로 기술되어 있다.

51) 《高麗史》卷6 世家6 靖宗 2年(1036) 6月 壬申日

"有司窵門下侍中致仕庾方等十七人請限立秋每十日一賜冰從之"

52) 《高麗史》第63 志 第17卷 吉禮小祀 司窵

"司窵孟冬及立春藏冰春分開冰亨之"

53) 《高麗史》卷60 志 第14卷 禮2 吉禮大祀

54) 《高麗史節要》第2卷 成宗 甲午 13年 4月

"親禘于大廟祔太祖惠宗定宗光宗戴宗景宗神主大赦賜文武爵一級執事者二級百姓大酺三日恤孤獨賞耆舊錫 欠負放逋懸"

55) 《高麗史》卷12 世家12 睿宗 3年(1108) 4月 己亥日

56) 《高麗史節要》第3卷 顯宗 己巳 20年 4月

"議增大廟寔豆禮部據王制豐年不審凶年不儉之義執不可乃止"

충렬왕 때 경령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변두가 실제로 모자라서 내전의 정사색의 것을 빌려서 사용하기도 하였다("禘事于景靈殿寔豆缺假內殿淨事色以祭"《高麗史節要》第19卷 忠烈王 元年 5月).

57) 《高麗史節要》第4卷 靖宗 壬午 8年 3月

"禮部窵今四月當行禘祫而王后冊封都監將以二十一日行冊禮其禘祫請行禘事內史門下窵禘祫固有定期封冊 自可從宜請先行禘禮從之"

58) 《高麗史》卷14 世家14 睿宗 11年(1116) 4月 丁卯日

"命有司禘于大廟以金上琦配宜廟崔思讓配肅廟"

59) 《高麗史》卷60 志 第14卷 禮2 吉禮大祀

60) 《高麗史節要》第9卷 仁宗 癸卯 元年 7月

61) 《高麗史節要》第10卷 仁宗 庚申 18年 4月

「경신지키기」라고 한다.⁶²⁾ 태자가 안경공 창을 맞이하여 잔치하고 풍악을 올려 밤을 새웠다.

5. 5월

가. 단오

단오는 5월 5일로, 왕은 이날을 맞이해서 경령전에 나아가 집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선대의 왕들에게 예를 올린다.⁶³⁾ 이와 반대로 왕을 대신하여 백관들이 대신 제를 올리기도 한다.⁶⁴⁾ 또한 왕은 연회를 베풀고⁶⁵⁾ 격구와 화포 등 각종 잡희를 즐겼다.⁶⁶⁾ 예종은 단오시를 지어서 좌우 신하들에게 보여주고 화답시를 지어 올리게 하였다.⁶⁷⁾ 고종은 12공신에게 각각 은병 5개와 쌀 20석을 주고 나머지 공신에게 물품을 차등있게 하사하였다. 이를 단오선사(端午宣賜)라 한다.⁶⁸⁾ 또한 신우는 석전을 보고 나서 능숙한 자들에게 주과를 베풀고 지팡이까지 선사하였다.⁶⁹⁾ 석전은 무퇴배가 떼를 지어 큰거리에 모여서 두편으로 갈려서 서로 조약돌과 깨진 기왓장을 혹은 몽둥이까지 사용하여 승부를 가리는 놀이이다.

나. 소서

소서는 황경이 105°로서 6월(季夏月) 절기이다. 정종(靖宗)은 소서가 다가오니 중죄수들을 관대히 취급하여 밥분량을 늘리고 경죄수들을 석방하라고 하였다.⁷⁰⁾

6. 6월

가. 유두(流頭)

유두일은 6월 15일로,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아서 좋지 못한 일을 제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앉아서 술을 마시는 유두음을 즐겼다.《고려사》와《고려사절요》에 시어사 두사람이 환관 최동수와 함께 광진사에서 유두음 놀이를 하였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⁷¹⁾

나. 복날(伏日)

복날이라 하여 가벼운 죄수들을 석방하였다.⁷²⁾

62)《高麗史節要》第18卷 元宗 乙丑 6年 4月 庚申日

63)《高麗史》卷18 世家18 毅宗 9年(1155) 5月 辛亥日

《高麗史》卷19 世家19 明宗 3年(1173) 5月 丙申日

《高麗史節要》第19卷 忠烈王 乙亥 元年 5月

64)《高麗史節要》第19卷 忠烈王 元年 5月

65)《高麗史》第30 世家30 忠烈王 己丑 15年(1289) 5月

“王及公主以端午宴于涼樓觀擊毬時牡丹花落盡以綵蠟作花綴於枝條”

66)《高麗史》卷134 列傳47 辛禡 5年(1379) 5月

67)《高麗史》卷12 世家12 睿宗 元年(1106) 5月 丙申日

“王賦端午詩宣示左右令和進”

68)《高麗史》卷24 世家24 高宗 46年(1259) 5月 乙巳

“賜十二功臣銀瓶各五事米二十石其餘功臣亦賜有差名爲端午宣賜”

69)《高麗史》卷134 列傳47 辛禡 6年(1380) 5月

《高麗史》卷135 列傳48 辛禡 10年(1384) 5月

70)《高麗史》卷6 世家6 靖宗 11年(1045) 5月 庚申日

71)《高麗史》卷20 世家20 明宗 15年(1185) 6月 丙寅日

“有待御史二人與宦官崔東秀會于廣眞寺爲流頭飲國俗以是月十五日沐髮於東流水祓除不詳因會飲號流頭飲”

다. 각종 제사

6월에 영성(彗星),⁷²⁾ 중류제(中糶祭),⁷³⁾ 후농제사(後農祭祀)⁷⁴⁾를 지냈다.

7. 7월

가. 칠석

칠석은 7월 7일로서, 공민왕과 공주는 내전 뜰에서 견우와 직녀를 제사했다.⁷⁵⁾

나. 우란분재(盂蘭盆齋)

우란분절은 7월 15일로, 예종은 장령전에서 우란분재를 올려서 속종의 명복을 빌었으며, 이튿날에 명망있는 스님을 초청하여 목련경을 강의하게 하였다.⁷⁶⁾ 이후에 장령전⁷⁷⁾, 봉원전⁷⁸⁾, 신흥사(神孝寺)⁷⁹⁾, 광명사(廣明寺)⁸⁰⁾, 내전⁸¹⁾ 등지에서 왕은 우란분재를 거행하여 선대왕들을 추모하였다. 문종은 교서를 통해서 중이 장사치들과 결탁하여 물건을 때매하고 잡인들과 어울려서 술주정을 하며, 놀음청에 뒤섞이어 우란분절을 모독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기도 하였다.⁸²⁾ 7월 15일은 우란분재와 백종일이지만 백종에 대한 기사는 보이지 않는다.

8. 8월

추석

왕은 추석을 맞이하여 경령전에서 선대왕들에게 제향하고⁸³⁾ 관리들에게 중추연을 베풀었다.⁸⁴⁾ 신우는 8도의 노래, 광대와 배우를 불러올려서 국고를 털어가면서까지 동강에서 각종 놀이를 즐겼다.⁸⁵⁾ 또한 도당은 이빈 등을 보내어 신우에게 의복, 술, 과일 등을 보냈다.⁸⁶⁾ 국가에서 매양 중추때가 되면 동남반(東南班)의 원리를 교외에 불러놓고 활쏘고 말타는 것을 교습시켰던 사실도 기록하고 있다.⁸⁷⁾ 예종은 중추절에 문신을 거느리고 중광전의 편전에서 달을 구경하고 영월시(詠月詩)를 지었는데, “후일 우리 백성이 부유하고 장수하게 되면, 중추절을 유쾌히 맞아서 중대신들과 함께 잔치놀이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⁸⁸⁾

72) 《高麗史》卷5 世家5 德宗 元年(1032) 6月 辛丑日

73) 《高麗史》卷6 世家6 靖宗 11年(1045) 6月 己卯日

74) 《高麗史》卷7 世家7 文宗 2年(1048) 6月 癸未日

75) 《高麗史》卷7 世家7 文宗 2年(1048) 6月 丁亥日

76) 《高麗史》卷38 世家38 恭愍王 2年(1353) 7月 壬申日

77) 《高麗史》卷12 世家12 睿宗 元年(1106) 7月 癸卯

78) 《高麗史》卷13 世家13 睿宗 4年(1109) 7月 戊午日

79) 《高麗史》卷18 世家18 毅宗 7年(1153) 7月 壬寅日

80) 《高麗史》卷30 世家30 忠烈王 11年(1285) 7月 癸未日

81) 《高麗史》卷31 世家31 忠烈王 22年(1296) 7月 辛巳日

82) 《高麗史》卷39 世家39 恭愍王 5年(1356) 7月 癸巳日

83) 《高麗史》卷7 世家7 文宗 10年(1056) 9月 丙申日

“遣商賈買結客醉娛喧雜花院穠臭蘭盆”

84) 《高麗史》卷20 世家20 明宗 20年(1190) 8月 丁酉日

85) 《高麗史》卷32 世家32 忠烈王 27年(1301) 8月 辛巳日

86) 《高麗史》卷136 列傳49 辛禱 13年(1387) 8月

87) 《高麗史》卷137 列傳50 辛禱 14年(1388) 8月

88) 《高麗史節要》第4卷 文宗 庚寅 4年 10月

9. 9월

가. 중앙절

중앙절은 9월 9일로, 왕은 이날을 맞이해서 경령전에 배알하여 선대왕을 추모하고, 관리들에게 중앙연을 베풀고 하사품을 전달하기도 한다.⁸⁹⁾ 왕이 직접 시를 짓고 신하들에게 화답시를 짓게 한다.⁹¹⁾ 왕이 지방을 순행할지라도 여느 중앙절처럼 관리들에게 연회를 베풀고 시를 짓는다.⁹²⁾

나. 입추

입추는 황경이 135°로서 7월(孟秋月) 절기이다. 숙종은 임진현 보통원에서 행려에게 음식을 입추까지 시어할 것을 유사에 명하고, 제위포(濟危縹)에도 이같이 명하였다.⁹³⁾

10. 10월

가. 합제(給祭)

합제는《고려사》예지에 태묘에서 3년에 1회씩 왕이 선대 왕들에게 친히 올리는 제사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세가에는 종묘에서도 지낸 사례도 기록되어 있다.⁹⁴⁾ 문종은 종묘에서 합제를 올린 다음 9묘에 존호를 더 높였다.⁹⁵⁾ 또한 태묘에서 합제를 지내고 사를 내리기도 하였다.⁹⁶⁾ 예종은 태묘에서 친히 합제를 지내면서 송나라에서 보내온 새 음악을 고려음악과 함께 사용하였으며, 이후에 대사를 단행하기도 하였다.⁹⁷⁾

나. 재제(齋祭)

왕이 서경으로 가서 친히 재제를 치루고 각 주군과 진을 순행하고, 죄수들을 특사하고, 노인들을 위문하고, 물품을 주고, 명산들과 주진(州鎭) 신들의 훈호를 붙여 주었으며, 1년분 전조(田租)를 건

89)《高麗史》卷13 世家 13 睿宗 4年(1109) 8月 丁亥日

“王以中秋率文臣翫月御重光便殿御製詠月詩其末聯云他日吾民躋富壽好酬佳節燕公卿命文臣和進”

90)《高麗史》卷61 志 第15卷 禮3 景靈殿

《高麗史節要》第5卷 文宗 辛亥 25年 9月

《高麗史節要》第7卷 肅宗 癸未 8年 9月

91)《高麗史節要》第7卷 睿宗 辛卯 6年 9月

《高麗史節要》第7卷 睿宗 丁酉 12年 9月

92)《高麗史節要》第3卷 顯宗 己巳 20年 9月 甲子日

《高麗史節要》第5卷 文宗 壬戌 36年 9月

93)《高麗史節要》第6卷 肅宗 辛巳 6年 4月과 5月

《高麗史節要》第5卷 肅宗 壬午 7年 4月

94)《高麗史節要》第8卷 睿宗 甲午 9年 10月

《高麗史節要》第19卷 忠烈王 丙子 2年 10月

95)《高麗史》卷7 世家7 文宗 10年(1056) 10月 壬戌日

《高麗史節要》第4卷 文宗 丙申 10年 10月

96)《高麗史節要》第4卷 文宗 戊子 2年 10月

《高麗史》卷7 世家7 文宗 2年(1048) 10月 乙亥日

“給于大廟邊御神鳳樓殿”

97)《高麗史》卷13 世家13 睿宗 9年(1114) 10月 丁卯日

“親給于大廟兼用宋新樂殿”

감하고, 양경과 진의 군사로서 나이 80세 이상 관직자는 등급을 올리고, 무관직자는 배적교위(陪戎校尉)를 제수(除授)하고, 호경의 의업생 복업생이 학교에 있는 지 만 20년 나이 50이 넘은 자는 모두 벼슬을 주어 마의를 벗게 했으며, 문무관 3품 이상의 아내로서 수절한 자는 작을 봉하여 주었다.⁹⁸⁾ 태조부터 정치·사회·문화적으로 서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⁹⁹⁾ 이후에 왕들도 꾸준히 서경에 행차하였다.¹⁰⁰⁾ 왕이 직접 서경에 가지 못할 경우 재상을 보내서 재제를 섭사케 하였으며, 더욱이 갑오년에 서경에서 사건¹⁰¹⁾이 일어나서 사신을 보내지 않았다. 근년 이래 삼품관만을 다시 보내고 있는데, 최종렬이 재상을 보내어 재제를 섭사케 하는 것이 옳다고 하니 명종이 그의 뜻을 따랐다.¹⁰²⁾

11. 11월

가. 팔관회

태조가 처음으로 팔관회를 열고 의봉루에 나아가 관람하는 것으로 매년 거행하였다.¹⁰³⁾ 《고려사절요》에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태조는 불교로 나라를 편안하게 하고자 팔관회를 개최하였다. 구경에 윤등과 향등을 설치하여 밤새도록 빛을 비추게 하고 연대(蓮臺)모양의 채색 누각을 설치하여 각종 유희를 즐겼으며, 관원들은 도포를 입고 홀을 쥐고 예를 차렸으니 인산

98) 《高麗史》卷1 世家 1 太祖 9年(926) 12月 癸未日

《高麗史》卷2 世家 2 太祖 14年(931) 11月 申亥日

《高麗史》卷2 世家 2 太祖 17年(934) 正月 甲辰日

《高麗史》卷3 世家 3 穆宗 2年(999) 10月

《高麗史》卷3 世家 3 穆宗 7年(1004) 11月

《高麗史》卷3 世家 3 穆宗 10年(1007) 10月 戊申日

《高麗史》卷3 世家 3 穆宗 11年(1008) 10月

99) 《高麗史節要》第1卷 太祖 癸卯 26年

훈요십조 제5조에 “西京水德調順爲我國地脈宜當四仲巡駐留過百日以致安寧”의 내용이 담겨 있으며, 태조 사후에 기록된 李齊賢 贊에도 “史臣曰… 屢幸西京以爲根本之地也親巡北鄙以連犢悍之俗也”라고 기록되어 있다.

100) 《高麗史節要》第2卷 穆宗 己亥 2年 10月

《高麗史節要》第5卷 文宗 丁酉 11年 8月 辛未日

《高麗史節要》第5卷 文宗 庚申 34年 9月 丙戌

《高麗史節要》第6卷 宣宗 丁卯 4年 8月 丙午日

《高麗史節要》第6卷 宣宗 任申 9年 8月 戊辰日

《高麗史節要》第6卷 肅宗 壬午 7年 7月 庚戌日

《高麗史節要》第7卷 肅宗 乙酉 10年 8月 乙亥日

《高麗史節要》第7卷 睿宗 丁亥 2年 11月 庚午日

《高麗史節要》第8卷 睿宗 丙申 11年 3月

《高麗史節要》第8卷 睿宗 庚子 15年 8月 乙酉日

101) 《高麗史節要》第12卷 明宗 甲午 4年 9月

서경유수병부상서 조위충이 ‘북계에 가까운 여러 성에는 성격이 거세고 나쁜 사람들이 많으니 토벌해야 한다(近北界諸城率多桀驁宜往攻討)’는 중방의 결의에 격분하여 난을 일으켰는데, 최종렬은 이를 지칭한 듯하다.

102) 《高麗史節要》卷12 明宗 辛丑 11年 10月

“命參知政事崔忠烈如西京行八關會舊制每當燃燈八關遣宰相於西京齋行齋祭自甲午年西京有事詔停遣使比年以來只遣三品官忠烈利其賂賄妄言先王嘗遣宰相爲使益重翼京也乞依舊制王愾知其意從之”

103) 《高麗史》卷1 世家1 太祖 戊寅 元年(918) 11月

인해를 이루었다. 태조는 위봉루에 나아가 관람하고, 부처를 공양하고 귀신을 즐겁게 하는 모임이라고 하였다.¹⁰⁴⁾ 이 때 태조의 행선지로 《고려사》에는 의봉루(儀鳳樓)로, 《고려사절요》에는 위봉루(威鳳樓)로 각각 기록되어 있다.

성종은 팔관회의 잡기들이 떳떳하지 못하고 변쇄하다하여 폐지하였다.¹⁰⁵⁾ 재차 양경의 팔관회를 정지하라고 명령하였다.¹⁰⁶⁾ 다만 왕이 법왕사에 행차하여 행향하고 구정으로 돌아와서 문무관으로부터 조하를 받았을 뿐이다.¹⁰⁷⁾ 이후에 현종은 폐지된 지 30년이 지나서 정당문학 崔沆의 청으로 팔관회를 부활시키고,¹⁰⁸⁾ 위봉루에 나아가서 풍악을 관람하였다.

대체로 왕은 팔관회를 열고 여러 관리에게 주연을 베풀고, 저녁에는 법왕사에 행차한 것으로 《고려사》에 다수 기록되어 있다. 또한 동서양경과 동부양도(강원도와 평안도) 병마사와 4도호부, 8목에서 왕에게 표문을 올리고, 송나라 상인과 여진, 탐라국에서도 토산물을 바쳤다.¹⁰⁹⁾ 서경 팔관회는 대신을 보내서 10월 보름에 열거내¹¹⁰⁾ 왕이 직접 참가하여 팔관회를 열고, 장경사 또는 흥국사에 행차하였다.¹¹¹⁾

팔관회는 11월 보름에 반드시 거행한 것은 아니다. 보름에 월식이 있거나 묘(卯)일이면 하루 이틀 정도 앞당겨져서 팔관회를 열거내¹¹²⁾ 중지시킨 사례도 있었다.¹¹³⁾ 또한 선종이 즉위하던 해는 국상과 관련하여 팔관회를 11월에 거행하지 못하고 12월에 열었다. 문종은 신봉루 앞에 차려놓은 장전(帳殿)에 앉아서 문무백관의 축하를 받은 후 법왕사에 행차하였다.¹¹⁴⁾ 팔관회 일자가 변경되어 거행되어도 진행절차와 방식은 동일한 것 같다. 또한 일부 재상은 팔관회의 폐해에 대해서 지적하기도 하였다.¹¹⁵⁾

나. 동지

동지는 황경이 270°로 11월[仲冬月] 중기이다. 동지를 맞이하여서 성종은 원화전(元和殿)에 나가 조하를 받고, 신하들을 사현전(思賢殿)에 모아 잔치를 베풀었다.¹¹⁶⁾ 한편, 충렬왕과 공민왕은

104) 《高麗史節要》第1卷 太祖 戊寅 元年 11月

“設八關會有司言前王每歲仲冬大設八關齋以祈福乞遷其制王曰朕以不德獲守大業蓋依佛教安輯邦家遂於 毬庭置輪燈一所香燈旁列滿地光明徹夜又結綵棚兩所各高五丈餘狀若蓮臺望之縹緲呈百戲歌舞於前其四仙 樂部龍鳳象馬車船皆新羅故事百官袍笏行禮觀者傾都晝夜樂焉王御威鳳樓觀之名爲供佛樂神之會自後歲以 爲常”

105) 《高麗史》卷2 世家2 成宗 卽位年(981) 11月

106) 《高麗史》卷3 世家3 成宗 丁亥 6年(987) 10月

107) 《高麗史節要》第3卷 顯宗 庚戌 元年 11月

108) 《高麗史節要》第3卷 顯宗 庚戌 元年 11月 庚寅日

109) 《高麗史》卷6 世家6 靖宗 卽位年 11月 庚子日

《高麗史》卷69卷 志 第23卷 禮11 仲冬八關會儀 大會日

110) 《高麗史》卷6 世家6 靖宗 卽位年 10月

《高麗史節要》第12卷 明宗 辛丑 11年 10月

111) 《高麗史》卷6 世家6 靖宗 7年 10月 己丑日

《高麗史》卷8 世家8 文宗 11年(1057) 10月 丁巳日(8월 辛未日에 왕은 서경에 행차하였다.)

《高麗史》卷10 世家10 宣宗 4年(1087) 10月 壬辰日(8월 庚午日에 왕은 서경에 행차하였다.)

112) 《高麗史》卷7 世家7 文宗 5年(1051) 11月 庚申日

《高麗史》卷21 世家21 神宗 3年(1200) 11月 丙寅日

113) 《高麗史》卷133 列傳46 辛禡 3年(1377) 11月 己丑日

114) 《高麗史節要》第5卷 文宗 癸亥 37年(宣宗 卽位年) 12月

115) 《高麗史節要》第12卷 明宗 己亥 9年 11月

“宰相崔忠烈建議棄八關經費之弊內言百官果床與中禁軍衣飾尤爲無制請一切禁除從之”

116) 《高麗史節要》第2卷 成宗 癸未 2年 11月 甲子日

각도 안렴사와 수령들이 신년과 동지를 맞이하여 국왕에게 올리는 축하장과 별계장을 중지시키기도 하였다.¹¹⁷⁾ 동지부터 양이 처음으로 동하고 만물이 생기를 품게 되니 만물을 보호하여, 생명을 유지하게 할 것이다. 백성들이 천렵하고 사냥하는 것을 금지하였다.¹¹⁸⁾

12. 12월

가. 대한

대한은 황경이 300°로 12월〔季冬月〕중기이다. 이날을 맞이하여서 죄수들을 너그럽게 처결하거나 석방하였다.¹¹⁹⁾

나. 입춘

입춘은 황경이 315°로서 1월〔孟春月〕절기이다. 백관이 입춘을 축하하니 왕이 그들에게 춘번자(春幡子)를 주었다.¹²⁰⁾ 그리고 예종은 봄맞이 글 두수를 지었는데, 이들 모두가 전례를 따른 것이었다.¹²¹⁾

다. 역막이굿(季冬大擺儀)

역막이굿은 진지들을 선발하여 이들로 하여금 궁성의 악귀들을 쫓는 의식이다. 정종(靖宗)은 역막이굿에 5마리의 닭을 잡아서 역귀를 쫓는데 다른 것으로 대용할 것을 명하였다. 이에 사천대에서 말하기를《서상지(瑞祥志)》에 따르면 막대기로 심을 박고 흙으로 소를 만들어 찬 기운을 가신다고 하였으니, 길이 1척과 높이 5촌의 소 4필을 만들어 닭 대신 사용하기를 청하니 왕이 따랐다.¹²²⁾

예종은 대나례를 행하였는데 왕씨 모두를 불러들이니 궁중이 매우 혼잡하였으며 깃발이 길에 가득하였다. 이 날 나례에 광대와 재주꾼, 지방에서 기생까지 불러들였다. 날이 저물면서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었다. 왕이 구경하려 할 때 다투어가며 연기를 보이려 하니 좌우가 어지러워서 400여명이 나 물리쳤다.¹²³⁾ 또한 충렬왕은 거리에서 나례를 행하는 것을 금지하였다.¹²⁴⁾ 예지에 역막이굿에 관하여 구성과 절차를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¹²⁵⁾

IV. 왕실 세시의례의 특징

《고려사》와《고려사절요》를 통해서 고려시대 왕실의 세시의례를 월별로 살펴보았다. 고려 왕실

- 117)《高麗史》卷29 世家29 忠烈王 5年(1279) 7月 乙卯日
《高麗史》卷40 世家40 恭愍王 11年(1362) 11月 庚寅日
118)《高麗史》卷9 世家9 文宗 27年(1073) 11月 辛亥日
《高麗史節要》第5卷 文宗 丙辰 30年 11月
119)《高麗史》卷4 世家4 顯宗 10年(1019) 12月 壬辰日
《高麗史》卷37 世家37 忠穆王 元年(1345) 12月 己亥日
120)《高麗史》卷19 世家29 明宗3年(1173) 正月 戊寅日
《高麗史》卷67 志 第21卷 禮9 嘉禮
121)《高麗史》卷13 世家13 睿宗 5年 (1110) 12月 癸丑日
《高麗史》卷67 志 第21卷 禮9 嘉禮
122)《高麗史》第64卷 志 第18卷 禮6 軍禮
123)《高麗史節要》第8卷 睿宗 丙申 11年 12月
124)《高麗史節要》第21卷 忠烈王 乙未 21年 12月
125)《高麗史》第64卷 志 第18卷 禮6 軍禮

의 세시의례에 나타난 사실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첫번째로 고려 왕실은 왕을 중심으로 하여 각 시절을 맞이하여 제를 올렸다. 고려 왕들은 천자의 예인 천지제사·선대 왕을 제사의 주 대상으로 삼았으며, 농업과 관련있는 제사에도 참석하였다. 부득이 한 경우에는 왕이 참석하지 못하고 신하들로 하여금 제를 대행케 하였다.《고려사》예지에 고려의 5례로 길례·흉례·군례·빈례·가례가 기록되어 있다. 길례가 왕실의 세시의례와 주로 관련있으며 대사·중사·소사로 나뉜다. 대사에는 원구·방택·사직이 있다. 원구와 방택은 천자의 예로서 고려의 자주성을 나타내기도 하면서 왕실의 권위와 명분을 내세운 듯하다. 원구는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제단으로 주위가 6장 3척이며, 높이가 5척이며, 12층계로 이루어져 있다. 정월 첫 신일(辛丑)에 풍작을 기도하며, 4월에는 수시로 적당한 날을 택하여 우제를 지낸다. 희생은 상제와 태조에게는 푸른송아지 1두를 올리며 5방신에게는 지역색에 맞는 송아지를 바친다. 방택은 토지신에게 제를 올리는 단이다. 고려 왕들이 제를 올린 일자를 비교해 보면, 여타의 제와 달리 방택 일자는 특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 방택 제사 방식과 절차는《고려사》예지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천자의 예로서 토지와 관련있기 때문에, 원구에서 올린 천제와 비슷하리라 생각한다. 그런데《조선왕조실록》은 이들 제사를 원구에서 합제하였기 때문에 방택이 전해지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¹²⁶⁾

또한 대사는 선대왕을 추모하는 조상숭배와 관련있다. 고려 왕실의 조상숭배 시설로 능·진전과 경령전·혼전과 태묘가 있다.(허흥식 1995 : 54) 태묘, 진전사원과 경령전이 왕실의 세시의례와 실제로 관련을 맺고 있었으며, 왕은 절일에 맞추어서 이곳들을 친전하였다. 태묘는 왕이 조상의 제사를 지내는 시설물로서 성종 11년(992)에 완공하여 5묘로 출발하였다.¹²⁷⁾ 또한 태묘는 5묘에서 왕과 왕비를 모신 8실로 변경하였다가 다시 5묘로 환원하였다. 이후에 7묘로 천자를 표방하였다가 원의 지배하에서 다시 제후의 묘인 5묘로 격하시켰다. 태묘 왼쪽과 오른쪽에 선대왕 신주를 모시는데, 왼쪽을 소(昭)라 하고 오른쪽을 목(穆)이라 한다. 태묘에서 한식과 납일에 왕이 친히 제향을 드렸으며, 맹월에는 길일을 택하여 제를 올렸다. 또한 4월에는 5년마다 체제를, 10월에는 3년마다 합제를 태묘에서 올렸다. 체제와 합제는 선대 조상들에게 올리는 합동제사의 성격을 띠고 있다. 합제는 반드시 태묘에서 지내지 않고 종묘에서도 지냈다.¹²⁸⁾

진전 또는 영전은 왕과 왕비 진영을 모신 시설이다. 이는 대체로 사찰 내에 설치되어 있어 흔히 원찰이라고도 부른다. 주로 개경과 그 인근에 사원을 창건하고, 왕은 친히 기일에 맞추어서 사찰에 행차하여 부모 진전에서 제례로서 행향한다. 인종 이전까지 진전사원으로 봉은사를 비롯하여 안화사·흥원사·흥왕사·천수사·대운사·중광사·흥호사·현화사·국청사·송교사·건원사 등이 있었다. 이후에도 왕실은 지속적으로 진전사원을 설치하였다.(허흥식 1995 : 68~84) 여러 원찰 중에 봉은사는 왕실의 세시의례와 관련있다. 여타의 원찰은 왕이 기일에 맞추어서 행차하였기 때문에 다소간 왕실과 일시적으로 국가적 관계를 유지하였지만, 봉은사의 경우는 태조의 원찰이었기 때문에 왕이 연등회를 마치고 이곳을 지속적으로 찾았다.《고려사》예지에 왕이 연등회를 마친 후에 진전에 행차하여 예를 올리고, 백관들과 함께 봉은사에도 행차하여 예를 올리는 절차와 방식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¹²⁹⁾ 태조의 진전이 서경에도 설치되어서 왕이 이곳에 행차하여 참배하였다.¹³⁰⁾

126)《朝鮮王朝實錄》成宗 卷62 6年 12月 庚寅(15日)

“禮曹啓謹按古者祭天於圓丘祭地於方澤取陰陽之義也然後世合祭天地於圓丘而方澤之制”

127)《高麗史節要》第2卷 成宗 戊子 7年 10月

128)《高麗史》卷7 世家7 文宗 戊子 2年(1048) 10月 乙亥日

경령전은 진영을 위해 대신에 소목으로 배치한 왕실에서 행하는 조상숭배의 한 방법¹³¹⁾이었다. 경령전은 진전의 다른 형태로서 송의 제도를 받아들여 문종때 설치되었다. 명종은 직계 5대 선조왕과 태조·현종을, 충렬왕은 직계 4대와 태조 진영을 경령전에 모셨다.(허흥식 1995 : 61~62) 왕은 정조·단오·추석·중구일에 경령전을 친전하였다.¹³²⁾ 태조 이하 여러 왕을 숭배하는 점에서 태묘와 상통하고, 선대 임금의 진영을 모신다는 점에서 진전과 유사성을 갖는다. 경령전은 태묘와 진전이 갖는 유교적·불교적 양상을 모두 갖추고 있다.

길례중사로 적전·선잠·문선왕묘이《고려사》예지에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서 살펴보면, 왕은 적전에서 치러지는 제와 의식에 친히 참석하였던 것 같다. 선농적전단(先農籍田壇)은 너비가 사방 30척, 높이 5척, 4면이 층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곳에서 신농씨에게 정월 길해(吉亥)를 택해서 제를 올린다. 선농단은 단상 북쪽에 남향으로 설치하고, 후직씨를 배위로 모셔서 단상 동편에 서향으로 설치한다. 단아래에 모두 돛자리를 칸다. 적전의 소홀로 신농에게 제사를 지냄으로써 농업을 장려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고려 왕들은 풍년을 위한 제사와 행사만을 거행한 것이 아니라, 농업정책을 민생안정과 관련하여 한 발 더 나아가서 왕권 안정을 꾀하고자 실제로 많이 시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요시 여겼다.¹³³⁾ 농업이 고려사회의 경제적 기반이었기 때문에 농사의 풍흉은 민생과 정권안정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따라서 왕들은 농업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다. 길례소사로 각종 제사¹³⁴⁾가 있었지만《고려사》예지에 기술된 절차와 방식을 살펴보면, 왕이 친

129)《高麗史》卷69 志 第23卷 禮11 嘉禮雜儀 上元燃燈會儀

130)《高麗史》卷14 世家14 睿宗 11年(1116) 4月 乙丑日

131)《高麗史》卷25 世家25 元宗2年 7月 辛酉
《高麗史》卷28 世家28 忠烈王2年 6月 丙戌
《高麗史》卷33 世家33 忠宣王2年 11月 壬寅

132)《高麗史》卷61 志 第15卷 禮3
《高麗古都徵》卷5 景靈殿

133)《高麗史節要》第2卷 成宗 丙戌 5年 5월
《高麗史節要》第3卷 顯宗 壬子 3年 3月
《高麗史節要》第3卷 顯宗 丙辰 7年 正月
《高麗史節要》第3卷 顯宗 戊午 9年 2月
《高麗史節要》第4卷 德宗 甲戌 3年 3月
《高麗史節要》第4卷 文宗 丁亥 元年 2月
《高麗史節要》第4卷 文宗 戊子 2年 3月
《高麗史節要》第4卷 文宗 辛卯 5年 4月
《高麗史節要》第4卷 文宗 甲午 8年 3月
《高麗史節要》第5卷 文宗 己亥 13年 2月
《高麗史節要》第5卷 文宗 丙午 20年 4月
《高麗史節要》第5卷 文宗 乙卯 29年 5月
《高麗史節要》第5卷 文宗 辛酉 35年 4月
《高麗史節要》第6卷 宣宗 癸酉 10年 6月
《高麗史節要》第9卷 仁宗 丁未 5年 3月
《高麗史節要》第9卷 仁宗 戊申 6年 4月
《高麗史節要》第10卷 仁宗 乙卯 13年 2月
《高麗史節要》第10卷 仁宗 甲子 22年 2月
《高麗史節要》第18卷 元宗 庚申 元年 5月

134)《고려사》예 기록된 길례소사 중에, 자연과 관련있는 의식이 일부 있다. 이는 농업과도 관련이 있겠지만, 자연재이(自然災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이는 군주의 실정에 대한 하늘의 견책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군주가 가장 꺼리는 일이며, 신하는 군주의 실정을 비판하는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많았다(한영우 1983 : 135).《고려사

히 참석하지 않고 담당 관리들이 제를 지낸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고려 왕실은 원구와 방택에서 천자에게 제를 지냈으며 태묘도 7묘 제도를 한때 택하여 천자를 표방하였다. 고려는 당시 중국과 비교해서 제후국 수준에 머물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천자의 예를 갖추고 있었다.

두번째로 고려왕실의 세시의례는 유교식 예제 중심으로 거행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고려사》예지 기록을 살펴보면 고려왕실의 공식적인 세시의례에 유교식 예제가 이미 깊이 침투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고려사》편찬 시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앞으로의 과제이기도 하다. 왕을 포함하여 관리들을 중심으로 의례가 진행되며, 희생과 술을 사용하고, 축문을 읽는 등 전체적으로 유교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왕이 연등회를 열고 봉은사에 행차하여 예를 갖출 때에도 유교식으로 진행하므로써 이를 더욱 더 분명히 반증해 준다. 연등회를 치를 때에 도교서·상사국·상익국·전중성은 소회의식을 치르고자 각자가 맡은 바 소임을 준비한다. 임금 편차행을 하면, 각 관리들은 예를 올린다. 그런 후에 편전에서 예를 받고, 진전을 참배한다. 이어서 수레를 타고 왕과 일행은 봉은사에 행차한다. 봉은사에서 유교적 소양을 갖춘 집례관들의 도움을 받아서, 왕은 격식에 맞게 각종 의례절차를 밟는다.¹³⁵⁾ 사찰에서 의례가 진행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불교식으로 치러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승려에 관한 이야기가 한마디도 예지에 언급되어 있지 않고 있다. 심지어 사찰에서 예를 갖추어도 불구하고, 술을 사용한다. 그러나 우란분재일(7월 15일)에 선행되는 선대왕 추모는 유교식으로 진행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왕들은 전이나 사찰에서 우란분재를 열어서 선대왕들을 추모하였다.《고려사》예지에 우란분재에 치러지는 진행절차와 방식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첫번째 이유로 들 수 있다. 두번째는 우란분재가 불교 경전에 입각한 정통적인 불교식 조상천도재이기 때문에, 성리학자였던《고려사》편찬자들이 절차와 진행방식을 실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고려사》에 나타난 기사로는 우란분재가 어떻게 치러졌는지 자세히 알 길이 없다. 특히, 전에서 우란분재를 치렀을 경우는 더욱 더 관심을 갖게 된다. 연등회를 마치고 나서, 봉은사에서 행해진 의식을 견주어 생각해 보면, 우란분재 절차 역시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다.

일상적으로 불교가 고려사회에 전반적으로 상당히 영향을 미쳤을지 모르지만, 유교식 예제가 고려왕실에 점차적으로 보급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다.《고려사》는 국상(國喪)도 태조상부터 한문제와 위문제의 고사를 기준으로 하여 치러야 한다¹³⁶⁾고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어, 이를 더욱 분명히 뒷받침하고 있다. 고려사회가 불교 영향권 아래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겠다. 다만《고려사》와《고려사절요》에 이와 같이 기술되어 있음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려사》와《고려사절요》편찬자들이 유교적 소양을 갖춘 조선조 성리학자들이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또한 이들은 불교 관련 자료수집을 사전에 준비하지 못했거나 관심이 없었을 것이다.(한영우 1983 : 119)

절요》는《고려사》보다 재변의 발생을 많이 기록하고 있다.《고려사절요》는 지진·일식·월식·혜성·수성·태백성·화재·홍수·가뭄·황충·우박·낙뢰·폭설 등과 같은 재이를 여러 왕에 걸쳐서 상당수 기록하고 있다.

135)《高麗史》卷69 志 第23卷 禮11

136)《高麗史節要》第1卷 太祖 癸卯 26年 6月

《高麗史節要》第2卷 景宗 辛巳 6年 7月

《高麗史節要》第5卷 文宗 丁酉 11年 5月

고려시대 불교는 종교·사상적 측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과 깊은 관련을 맺어서 실제로 영향을 끼쳤다. 왕에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불교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따라서 고려시대 불교는 국교적인 위치에 다다랐을 정도였다. 예를 들면, 왕사와 국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으며, 왕이 사찰에 수시로 거행하였다. 또한 연등회와 팔관회가 거국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승려들은 정권담당자에게 무력으로 대항하여 유혈충동을 빚기도 하였다.¹³⁷⁾ 왕은 직접 보살계를 받았으며,¹³⁸⁾ 각종 도량법회가 왕의 주관으로 사찰이 아닌 전에서도 수시로 거행되었다. 예종은 재위기간(1105~1122)동안, 원년·3년·4년·5년·13년 총 5회에 걸쳐서 보살계를 받았으며, 재·도량설치·경전강독·기도 등 총 50여회가 넘는 불교행사를 치렀다. 재는 백일재를 지냈으며, 도량설치는 문덕전 18회, 건덕전 8회 등을 포함해서 금강경도량·반야경도량·소재도량·자비섬도량·인왕경도량·불좌도량·제석도량·공작명도량 등을 설치하여 길게는 7일 동안 계속되었다. 그리고 화엄경·인왕경·약사경을 강의하게 하였으며, 연흥전에서 왕이 친히 5일 또는 7일동안 계속해서 부처님에게 기도를 한적이 있다.《고려사》에 각종 불교의례가 69종 1,038회나 거행된 것으로 나타났다.(서운길 1993 : 158~183) 불교의례는 전국의 주요 사찰에서 동시에 거행되기도 하였으며,¹³⁹⁾ 주·부·군·현에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참석하여 여러날 동안 계속되었다.¹⁴⁰⁾

성종은 유교적 기반으로 고려를 통치한 유일한 왕이었다. 그러나 그가 유교적 소양이 투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희가 병이 났을 때, 성종은 친히 그를 문병하고, 어의와 말을 사원에 보시하고, 곡식 1,000석을 개국사에 보시하고, 수명을 기도하는데 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¹⁴¹⁾ 또한 성종이 팔관회를 중지시킨 것 역시 팔관회 자체보다도 팔관회가 가져오는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지시켰음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성종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유교적인 통치로 일관하였지만, 그 역시 생사문제와 관련해서는 어찌할 방법이 없었을 것이다. 여기에서 성종의 정신적 지향성만은 불교를 외면할 수 없었음을 엿볼 수 있다. 유교는 불교가 행할 수 있는 종교적인 역할을 할 수 없는 결정적인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 유교식 예제는 군신관계를 유지하고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정치적 목적을 갖거나, 수단으로 이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교식 예제가 왕실에게 공식적인 의례 틀을 제공하였지만, 실제생활에서 불교의 범위를 뛰어넘었다고 볼 수 없다. 고려왕실의 신앙생활은 불교였겠지만, 정치체제는 유교를 바탕으로 해서 성립되어 갔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고려왕실 세시의례에 24절기가 이미 정착되어 실제로 지켜지고 있었다. 24절기는 태양년을 태양의 황경을 따라 24등분한 계절이다. 황경은 태양이 춘분에 지나는 점을 기점으로 하여 황

137) 《高麗史節要》第15卷 高宗 丁丑 4年 正月

138) 《高麗史節要》第4卷 靖宗 甲申 10年 6月

《高麗史節要》第6卷 宣宗 乙丑 2年 6月

《高麗史節要》第11卷 毅宗 丁卯 元年 6月

《高麗史節要》第18卷 元宗 庚申 元年 4月 戊午日

《高麗史節要》第22卷 忠烈王 戊戌 24年 5月

139) 《高麗史》卷135 列傳48 辛禰9年 9月

“設齋鑪兵法席于中外 佛宇共一百五十日所供費不可勝計”

140) 《高麗史》卷7 世家7 文宗 元年 1月

“諸州府郡縣逐年盛設輪經會”

141) 《高麗史節要》第2卷 穆宗 戊戌 元年 7月

“熙…及患疾成宗駕幸問疾以御衣及馬分施寺院又以穀一千碩施開國寺凡所以祈命者無所不爲”

도를 따라서 움직이는 각도를 말한다. 이는 0°일 때 춘분, 15°일 때 청명 등으로 15° 간격으로 24절기 일자를 구분한다. 태양의 위치, 즉 황경에 따라 변동하기 때문에 24절기 일자는 양력으로 거의 일치하지만, 음력으로는 약간 달라진다.(현정준 1990 : 645~6)

《고려사》와《고려사절요》는 24절기 중 일부인 입춘·곡우·입하·소서·입추·동지에 관해서 기술하고 있다. 한편, 조선조 세시의례를 비교적 잘 기술하고 있는《동국세시기》는 24절기 중 입춘·청명·동지를 기술하고 있다. 일부 절기는 비교적 상세히 기술하고 있는 반면에, 단순한 기술만으로 그치는 경우가 있어, 24절기가 조선시대 이전에 이미 지켜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고려 왕실 세시의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절기는 입춘과 동지이다.《고려사》예지에 입춘과 동지는 가례로 분류되어서, 이날 거행되는 의식에 관한 절차와 방법들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입춘을 맞이하여 문무백관들이 우선 왕에게 예를 갖추면 왕은 이들에게 춘번자를 하사하였다. 춘번자 내용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를 통해서 춘번자 내용을 알아 낼 길이 없으며, 여타의 자료를 이용하여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동지 역시 문무백관들이 먼저 왕에게 격식에 맞추어서 예를 갖추고, 각 지방 관리들이 물품을 바치면, 왕은 술과 과실 등을 하사한다. 동지를 맞이하여 군신의 예를 갖추고 상호 경축하였다.¹⁴²⁾ 이것이 동지와 입춘을 맞이하여 군신간에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의식이다.

곡우에는 이상 기후로 죄수들을 재심사하였으며, 소서와 대한을 맞이해서 중죄수들을 관대하게 하고, 경죄수들을 석방시켰다. 자연 재이는 군왕의 부덕으로 발생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일 것이며, 죄수들 역시 인간으로서 극단적인 기후에 적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따라서 왕은 이들에게 성은을 베풀으로써, 민심안정을 꾀하고자 하였던 것 같다. 민심안정은 결국 왕권안정과 직결된다고 여겼으리라 본다. 소서와 대한은 6월의 절기와 12월의 중기로서 더위가 시작되거나 추위가 지속된다.¹⁴³⁾ 입하와 입추 사이에 해당기관은 왕과 일부 퇴직자에게 얼음을 제공하는 시기이다. 이는 24절기 중 일부는 시기상 공무수행의 한 기준으로 삼았지 않았는가 생각해 본다. 이외에도 9대 속결로서 지정된 날 역시 죄수들의 형벌 집행을 금지시켰다.¹⁴⁴⁾ 또한 24절기가 아니지만, 가뭄과 홍수 등 자연재이가 발생할 때도 왕은 죄수 형량을 경하게 하거나 석방시켰다. 고려시대에는 태음력만이 생활의 한 기준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태양력도 아울러서 공존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불교적 지향성이 고려 사회를 전체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하지만, 왕실에서 치러진 의례는 유교적 특징을 드러내고 있었다. 또한 왕실뿐만 아니라 고려인의 세시의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겠지만, 24절기는 이미 고려사회에 정착되어 지켜지고 있었다. 물론 이외에도 여러 각도에서 고려왕실 세시의례를 접근할 수 있으리라 본다.

V. 맺음말

고려인들이 행하였던 세시의례를 다루기에 앞서 왕실 중심으로 세시의례를 살펴보았다. 이번 글

142)《高麗史》卷67 志 第21卷 嘉禮

143)《朝鮮王朝實錄》世宗 卷156 七政算內篇 上 曆日第一 氣候

“溫風至蟋蟀居壁屬始藜藿草爲萎土潤溽暑大雨時行…雁北鄉鵲始巢雉雞乳征鳥厲疾水澤腹堅”

144)《高麗史》卷84 志 第38 刑法1 禁刑

을 위해서 선택한 전거 역시 왕실 중심의 고려 역사서이기 때문에, 고려인들의 보편적인 삶의 양식들을 살펴보기에 역부족이었다. 지금까지 한국민속학에서 세시의례 연구는 시대사적으로 대체로 조선시대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어져 오지 않았나 하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본다. 물론 간혹 조선 이전 시대에 관심을 가진 학자가 있었다. 다소 역설적이겠지만, 이러한 연유로 앞으로 고려시대 세시의례를 지속이며,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상당히 있다. 이에 대해서 장철수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전통을 조선시대 문화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조선시대 문화가 유교와 주자학이라는 중국 통치이념을 기준으로 발달시켰을지라도 고려시대까지의 전통문화를 수렴하여 명실공히 민족문화로서 위상을 제대로 확립하고 있는데서 찾고 있다.(장철수 1996 : 16) 이는 고려와 조선이 전체적인 지배이데올로기를 달리한다하더라도, 조선문화가 일정 부분 고려문화를 바탕으로 성립하였거나 암묵적으로 계승하였음을 의미하는 것 같다.

또한 고려는 송의 제도와 문화를 받아들여서 나름대로 자주적으로 정착시켰다. 고려왕실 세시의례는 공식적으로 유교적 예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24절기 역시 이미 조선시대 이전에 고려사회에 정형화되어 정착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민속학 견지에서, 앞으로 고려사회의 불교와 유교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서 고려인의 생활상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고려와 조선의 24절기 내용을 상호비교하여서 당시의 실제생활과 이후의 변동상황도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고려시대 세시의례 연구를 이번으로 끝맺지 않고, 고려시대 제자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 이번 글을 고려시대 세시의례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겠다.《고려사》와 《고려사절요》이외에도 고려시대 세시의례를 연구할 수 있는 여타의 연구자료는 있다. 양 저서가 고려시대 역사를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하여도, 단 두권의 저서를 통해서, 500여년 고려 왕조의 세시의례를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랐다. 본 글은 고려시대 세시의례를 연구하기에 앞서 선행작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자료 기사가 다소 빠져 있을 수 있다. 기회가 닿는대로 이를 추후에 지속적으로 보완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高麗史》

《高麗史節要》

《朝鮮王朝實錄》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김선풍, 1991, <민속>, 《한국학기초자료선집》 중세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김혜숙, 1998, <팔관회의 기능과 변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변태섭, <고려사의 종합적 검토>, 1981년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역사연구실 연구과제.

서운길, 1993, <밀교적 제종의례의 개설>, 《고려밀교사상사연구》 불광출판부.

이두현, 1982, <한국세시풍 속의 연구>, 《한국민속연구논문선》Ⅱ, 일조각.

이두현·장주근·이광규, 1986, 《한국민속학개설》 학연사.

장정룡, 1988, 《한·중 세시풍속 및 가요연구》 집문당.

장주근, 1986, <한국의 농경과 세시풍속>, 《한국민속논고》 계몽사.

- , 1986, <한국의 세시풍속의 역사적 고찰>, 《한국민속논고》 계몽사.
- 장철수, 1995, <무형 및 민속문화재 연구의 회고와 전망>, 《문화재》28호, 문화재 관리국.
- 한영우, 1983,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의 역사인식>, 《한국사론6》 국사편찬위원회.
- 허흥식, 1995, 《고려불교사연구》 일조각.
- 현정준, 1990, <절기>, 《한민족대백과사전》1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Seasonal Ceremony of *Koryo* Royal Family

Park Jong Min
(*Onyang* Folk Museum)

Folklorists of Korea have taken as interest in seasonal ceremony early and have investigated it continuously. It means that seasonal ceremony have relation to our daily life. This treatise deals with seasonal ceremony of *Koryo* royal family which described in history of *Koryo* Dynasty and *Cholyo* on the history of *Koryo* Dynasty. Two historical books were described by confucian in the beginning of *Chosun* Dynasty. So seasonal ceremony which royal family had performed are described concretely and it's features are examined.

Seasonal ceremony is divided by month from January to December with a standard which past historian was insisted for a basis. History of *Koryo* Dynasty is specified seasonal ceremony which *Koryo*'s people was performed. It is specified *Wonjong*, *Sangwon*, *Hanshik*, *Sangsa*, *Dano*, *Chounggu*, *Donggi*, *P'alkwan*, *Ch'usok*, concretely.

The seasonal ceremony which is specified in the History of *Koryo* Dynasty and *Cholyo* on the history of *Koryo* Dynasty that is described in following sentence and this treatise is specified rite.

There is *Yondunghoe* in February, and *Samjinnal*, *Koku*, *Kyounghang* in March. There are Buddah's birthday, *Ibha*, *Ch'eche* and *Kyounghingikiki* in April, *Dano*, *Soseo* in May. There are *Youdu*, *Boknal* in June, *Ch'isok*, *Ouranbunjae* in July. There is *Ch'esok* in August, *Chungyangcheol* and *Ibch'u* in September, *Hapjae* and *Chejae* in October. There is *P'alkwanhoe* and *Donggi* in November, *Daehan*, *Ibch'un* and *Aekmakikut* in December.

Seasonal ceremony feature of *Koryo*'s royal family has relation to ancestor worship and was founded on confucian system, we know that the 24 solar terms was become fixed in *Koryo* Dynasty already.